

울산 검단리 유적

울산 검단리 유적과 청동기시대의 마을



1 개요

청동기시대의 마을은 어떤 모습일까? 벼농사를 근간으로 하던 사회이니 예전의 시골 마을처럼 낮은 지붕의 건물들이 웅기종기 모여 있고 마당과 축사에는 소나 돼지, 닭과 같은 가축들이 함께하며, 마을 바깥에는 푸른 논이 펼쳐져 있고 개울가에는 아이들이 물을 참방거리며 뛰어놀고 있는 모습. 이것이 보통 떠올리는 청동기시대 마을의 이미지일 것이다. 하지만 울산 검단리 마을 유적을 발굴하면서 이런 생각은 뒤바뀌게 되었다.

울산 울주군 웅촌면 검단리의 구릉에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환호로 둘러싸인 마을이 발굴되었다. 환호란 마을 주위를 둘러 도랑을 판 것이다. 일정 부분에만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도록 문을 만들었고, 마을 자체도 해발 200m 위의 비교적 높은 곳에 있어 주변을 다 둘러볼 수 있었다. 아울러 거대한 기둥 구멍들은, 그 구체적 형체는 알 수 없지만 감시탑과 같은 높은 건물이 세워져 있었던 것을 증명한다. 청동기시대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화로운 시대가 아니었던 것이다.

2 검단리 마을의 모습

검단리 마을은 총면적이 4,000㎡ 정도의 작은 마을이다. 마을에는 약 100여 채의 집자리가 있었다. 이 집자리들은 환호를 기준으로 만들기 이전, 환호가 존재한 시기, 그리고 환호가 없어진 시기의 세 단계로 나누어진다. 환호 이전에는 총 26채의 집자리가 있는데, 대부분 불에 타서 무너져 내렸다. 만약 급작스

런 전쟁에 의해 불탄 것이라면 살림살이가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하지만 내부에는 유물이 그렇게 많지 않아 가재도구를 정리한 후 불을 지른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마도 환호를 만들려고 일부로 집에 불을 질러 태운 것 같다.

환호가 존재한 시기에는 17채의 집자리가 확인되는데, 이전보다 집의 크기가 커지고 환호 안쪽뿐 아니라 바깥에도 집이 있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와 같은 계층의 차이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환호 폐기 이후에는 가장 많은 37채의 집자리가 발견되었는데, 집자리가 많은 만큼 마을의 범위도 더 넓어졌다. 이 시기의 집자리는 언덕 정상과 경사면의 두 개 그룹으로 구분되며, 집자리 간의 크기 차이도 크게 벌어졌다. 이러한 변화는 유물에서도 확인되는데, 환호 이전 시기에는 구멍무늬 토기가 주를 이루지만, 환호 폐기 이후에는 구멍무늬 토기가 사라지고 빗금무늬 토기만 확인된다.

집자리들 사이에는 넓은 공간이 있어서 아마도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광장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을 사람들은 광장에 모여 마을의 중요한 일들을 서로 논의했을 것이다. 그 외에 입구 쪽에는 망루를 세웠던 기둥의 흔적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또한 무덤은 마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는데, 고인돌과 돌널무덤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지만 검단리 마을 유력자의 무덤임에 분명하다.

검단리 유적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환호에 둘러싸인 마을 전체를 발굴한 것으로 이후 춘천 중도, 진주 대평, 화성 쌍송리, 김포 양촌리, 화성 동학산 등 한반도 전역에서 이러한 마을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다.

3 환호에 둘러싸인 마을

검단리 마을의 환호라고 불리는 도랑은 대략 총 길이 300m, 폭 2m, 깊이 1.5m로 현재는 사람이 뛰어넘을 수 있는 정도이지만, 원래는 더 넓고 깊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언덕 위에 타원형으로 파여 있는데, 긴 쪽의 길이는 118m, 짧은 쪽은 70m이다. 환호의 남쪽과 북쪽에 하나씩 입구가 만들어져 있어 외부에서 적이나 맹수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내부에서 가축이나 다른 것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을 것이다.

환호(環壕)는 환구(環溝), 환호(環壕)라고도 하며 주로 마을의 주위에 일종의 도랑을 파서 돌리는 시설물이다. 환호는 마을의 안과 밖을 구분 지으며, 우리와 다른 이들을 구분 짓는 경계인 것이다. 그 경계는 때에 따라 우리와 적이라는 경쟁관계가 되기도 하며, 성스러운 곳과 속세라는 상징적인 경계가 되기도 한다. 위치에 따라 형태도 다양하며, 산지와 같은 경사면에 있는 것은 그냥 구덩이만 팠겠지만, 평지에 있는 것은 물을 채워 내외부의 구분을 더 명확하게 했을 것이다.

진주 대평에서는 2~3층으로 환호를 만들기도 하였는데, 대체적으로 방어를 위한 시설이다. 하지만 초기철기시대의 보령 명천동에서는 산 정상에 작은 환호 내부에서 중국 청동거울을 가진 제사장의 무덤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이 점에서 환호를 두른 것이 단순히 군사적 방어의 의미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성스러운 장소와 속세를 나누는 등 안과 밖을 구분하는 경계라는 측면에서 다양한 의미가 부여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검단리 마을에서 알 수 있듯이 환호가 존재하는 것은 청동기시대의 전 시기가 아니라 특정한 시기에 한정된다. 그 말은 특별한 시기에 더욱더 마을 간의 긴장이 높아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앞서 살핀 것과 같이 환호의 안쪽에 사는 사람과 바깥쪽에 사는 사람들 간에는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분명한 차이를 인정할 수 있다. 거기에 진주 대평 유적의 사례를 보면 식량 저장 창고를 환호가 둘러싸고 있어, 일반적인 환호는 안전한 안쪽과 불안한 바깥을 구분하는 경계로서 군사적 방어 기능이 강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결국 검단리 마을에서 환호가 있던 시기는 주변 마을과 긴장관계가 있던 시기로서 전쟁과 통합의 시대였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집들을 급히 불태워서 환호를 만들었으며, 그 후, 사회적 긴장관계가 느슨해지면서 환호를 부수고 마을의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4 세계 속의 환호

이런 환호와 유사한 사례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확인된다. 동북아시아적 관점에서는 이웃한 중국 서안(西安) 반파(半坡)나 강채(姜寨) 유적에서 처음 발견되었는데, 신석기시대인 양소문화기(仰韶文化期)에 속하는 환호였다. 최근에 중국 동북지방의 오한기(敖漢旗) 흥륭와(興隆窪) 유적의 방사성탄소연대 측정 결과, 가장 오래된 연대로 확인되어 동북아시아 환호마을의 기원지로서 주목받고 있다. 일본은 농경사회의 시작과 함께 환호가 등장하는데, 특히 이타즈케(板付) 유적의 발굴조사와 함께 논농사, 석제 농기구, 환호 등이 완성된 형태로 한반도 남부에서 넘어간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런 환호 마을은 그대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전해지고 있다.

유럽의 경우 신석기시대 초기부터 코즈웨이드 엔크로저(causewayed enclosure)라고 불리는 환호가 등장하는데, 도랑을 파서 일정 공간을 둘러싸는 다양한 것들이 존재한다. 또한 기능적인 차이가 보이는데, 스톤헨지로 대표되는 영국 신석기시대의 제사유적인 헨지(henge)도 환호로 둘러싸인 경우가 있다. 이런 환호는 하나의 도랑만 발견된 경우도 있지만 그중에서부터 7중에 이르는 것도 확인되며, 나무벽이나 감시탑이 함께 설치되는 경우도 많다. 또한 유럽의 환호의 안쪽에는 집자리가 발견되기도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가축을 풀어놓고 방목하는 곳이나, 헨지와 같이 의례가 이루어졌던 공간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결국 세계의 환호는 마을 전체 혹은 곡식 저장 창고와 같이 일부분을 적이나 위험한 동물 등으로부터 방어하는 시설로 만들어지거나, 산 정상에 제사유적과 같이 특별히 성스러운 장소나 의례를 위한 건물과 같은 것의 주위를 둘러 다른 공간과 분리시켜 경계 짓는 방법 중 하나로 만들어진 것이다.

한반도의 환호는 울산 검단리 마을이 발굴된 이후 많은 자료가 축적되어 왔다. 신석기시대부터 특별한 공간이 구획되는 시설물이 확인되고 있는데, 진주 상촌리 유적이나 경기도 영정도의 운서동 유적이 대표적이다. 특히 운서동 유적의 경우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에 돌을 쌓아 만든 돌무지를 네모나게 둘러싼 도랑이 확인되었다. 아마도 풍어나 안전한 항해를 비는 의례가 바다가 잘 보이는 곳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청동기시대에는 전기부터 환호가 확인되는데, 늦은 시기로 가면서 집자리가 광장을 중심으로 원형으로 배치되며 환호가 등장한다. 이때는 초보적이기 때문에 정형성도 없고 깊이도 얕다. 하지만 이것이 정형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 울산 검단리 마을 시기이다. 이후 마을 간에도 농경이나, 옥, 석기 생산 등의 기능

적인 분화가 이루어지고, 큰 마을과 작은 마을 간의 차이도 나타나면서 환호는 더 복잡하게 발전한다. 진주 대평리 옥방 마을의 환호 안에는 옥과 같은 귀중한 유물이 많이 발견되고 고인돌 역시 많이 분포하며 귀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한 시설로 추정된다. 창원 남산 유적은 가파르고 높은 언덕 주위에 환호가 있는데, 깊은 곳은 4m에 가까워 적이나 맹수 등이 절대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방어 기능이 탁월하다. 하지만 안에는 집자리가 4~5개밖에 없어 특정한 이들을 위해 주변 마을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 환호를 만들었을 것이다.

이후에도 금관가야 왕궁지가 있는 김해 봉황대 유적이나 한성백제의 수도인 서울 풍납토성 등지에서 환호가 확인되는데, 특히 해발 100m 이상의 높은 곳에 위치한 마을인 창원 가음정동, 양산 다방리 등지에서 환호가 주목된다. 높은 곳에 마을이 위치하는 것은 주변의 동태를 잘 살피거나 신이 머무는 하늘에 가까이 가기 위함이며, 거기에 환호를 두르는 것은 방어나 속세와의 단절 같은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합천 영창리 유적은 삼면이 경사가 심한 절벽으로 된 언덕에 자리하는데, 사람이 걸어 올라올 수 있는 쪽에 여러 겹의 환호를 만들어 놓았다. 자연지형을 그대로 이용해 전체를 감싸는 환호가 아닌 부분으로써 최대의 효과를 누리고자 한 사례이다.

이렇듯 환호는 다양한 크기나 형태만큼 그 의미나 만들어진 방법도 다양하다. 그러나 이렇게 도량을 파서 그 안과 밖을 구분 지으려 하는 인간의 행위는 세계 어디에서나 등장하며, 그 의미의 다양성 또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반도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일본의 환호마을은 요시노가리(吉野ヶ里) 유적이나 이타즈케(板付) 유적 등이 대표적인데, 초기의 모습은 한반도와 비슷하다. 그러나 한반도에서는 환호가 사용되는 시기가 한 세대, 즉 30여 년에 불과하며, 환호 안쪽의 집자리도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수백 년에 걸쳐 환호가 사용되며, 2중·3중으로 계속 확대되면서 중심적인 도시로 성장한다. 이러한 차이는 일본이나 세계 각지에서 발견되는 환호가 안과 밖을 차별하는 계층 구분의 성격이 강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달리 한반도의 경우 차별이 아닌 우리는 하나라는 공동체 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청동기시대의 환호에서도 함께 사는 세상을 엿볼 수 있다는 것이다.